



강철구(웨신대)

## 1. 들어가며<sup>1)</sup>

구약 성서에서 여성적인 관점이 가장 잘 반영된 책으로 아가서와 욱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성경의 명칭과 성경의 주인공이 여성인 경우의 책이 두 권이 존재한다. 룻기와 에스더서이다. 그러나 이 여성들이 성경속의 주인공임에는 맞지만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의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성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sup>2)</sup>, 욱기는 직·간접적으로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남성과 같은 동등한 존재로 높여놓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1) 본 연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2) 에리히 쉐어, 「구약 성서개론」(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2), 680-682. 원제는 E. Zeng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4)

다.<sup>3)</sup>

물론 다른 구약 성서과 마찬가지로 욥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남성이다. 남성들이 주도하는 욥기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목소리가 직접 나오는 곳은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는 2장 9절 정도다. 그 외 욥기의 에필로그를 제외하면 욥기 1장 2절과 4절에서 욥의 딸들이 잠깐 언급되고 있고,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 부분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만 언급될 뿐이다.<sup>4)</sup>

“욥기는 남성들만 말하는 책 중 하나로 보인다. 여인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장면이 단 한군데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조차 여인은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비판에 입을 다물고 만다.”<sup>5)</sup>

비록 욥기의 프롤로그(욥 1-2장)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부정적으로 등장하고, 전체적으로 적게 언급되지만, 욥기에 묘사된 여성에 대한 이해는 다른 성경을 훨씬 능가한다. 물론 이러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에필로그(욥 42:7-17)에 가서 비로소 구체화 되지만 말이다. 욥기의 결론부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전통적인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고 욥기에서 여성은 무조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우수하다거나, 어떤 특권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지는 않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강조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월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여성의 위치를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돌려놓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욥기가 이러한 특징이 있음에도 욥기를 여성적인 관점에서

3)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연구」(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6), 282는 딸들이 그녀들이 형제들과 완전히 동등하게 보장된 상속자로 인정되었음을 말한다.

4) Christl Maier/ Silvia Schroer, “Das Buch Ijob. Anfragen an das Buch vom leidenden Gerechten”, L. Schottroff/ M. Th. Wacker (ed.), *Kompendium. Feministische Bibelauslegung* (Güter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99), 192.

5) 캐롤 A. 뉴섬, “욥기”, 캐롤 A. 뉴섬/ 샤론 H. 린지(역음), 「구약편.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349. 원제는 Carol A. Newsom/ Sharon H. Ringe,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해석하려는 시도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욱기의 여성 친화적인 성격을 소개하고, 앞으로 이어질 연구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욱기에 언급된 여성과 관련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욱기 저자가 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여성의 지위와 여성에 대한 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에 욱기의 형성사나 통시적인 방법보다는 우리에게 전해진 현재의 마소라 텍스트(MT)를 전제한다. 먼저 전체적인 욱기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욱기의 기존의 지혜전통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다룰 것이다. 다음에 욱기의 머리말 부분인 욱기 1-2장에 언급된 여성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욱과 친구들과의 논쟁이 언급된 3-37장의 여성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답변이 언급된 38장 1절-42장 6절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여성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긴 여정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한 욱을 통해서 욱기 저자가 묘사하고 있는 에필로그(욱 42:7-17) 부분의 여성에 대한 이해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2. 기존의 전통과 가치에 대한 비판

구약 성서의 지혜서 가운데 잠언이 기존의 전통과 가치를 옹호하는 ‘지혜의 교과서’라면<sup>6)</sup>, 욱기와 전도서는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인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려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특히 욱기는 고난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와 가치체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욱기는 욱이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를 좀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과정을 다룬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욱기 42장 5절

---

6) 오민수, “지혜전통의 계승과 혁신: 전도서에 사용된 이른바 ‘서술형 사고 패턴’의 유래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54집(2014년 12월), 281. 캐롤 A. 뉴섬, 윗글, 357에 의하면 기존의 전통과 가치는 주로 남성의 경험을 토대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7) 캐롤 A. 뉴섬, 윗글, 351.

의 ‘귀로 들음’을 통해서 얻은 기존의 가치체계는 옴이 듣고, 배웠던 전통적인 가르침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봄’(직접적인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었다.<sup>8)</sup>

그러기에 학자들은 전도서와 함께 옴기를 기존의 전통에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책으로 본다.<sup>9)</sup> 이러한 비판적인 지혜문학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지혜문학에서 중요한 주제인 ‘행위화복의 관계’(Tun-Ergehen-Zusammenhang)와 ‘지혜에 대한 가치’(접근 가능성)에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한다.<sup>10)</sup>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가 깨어지고 새로운 가치 체계로의 이행을 통해서 옴기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여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기에 직접 여성을 다루기 이전에 옴기에서 기존의 전통들이 깨어지고, 새로운 가치체계로 이동되는 과정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

## 1) 행위화복의 관계(인과율의 법칙)에 대한 비판적 이해

옴과 옴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행위화복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옴의 세 친구들은 행위화복의 관계가 지금도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옴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옴은 행위화복의 질서가 잘 작동해야 하는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한다. 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칙이 다시 제대로 잘 작동되게 하셔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주장한다.

---

8) 옴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9) 루디거 룩스, 「이스라엘의 지혜」(구자용 옮김),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2), 164는 이러한 상황을 지혜의 한 계로 지칭한다. “그러므로 나는 옴기와 전도서에서 보충되는 것들을 지혜의 위기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의 한계들’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원제는 R. Lux, *Die Weisen Israel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2).

10) 옴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회의의 문학적 접근에 관해서는 델(Dell)의 저서를 참고하시오. Katharine J. Dell, *The Book of Job as Sceptical Literature* (BZAW 197;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1).

그러기에 욥과 욥의 친구의 기본적인 전제는 세상에 인과율의 법칙이 있어야 하며, 그것에 의해서 창조세계가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회복의 원리에 간혀있는 분이 아니라, 더 큰 주권과 신적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sup>11)</sup>

이렇게 행위회복의 관계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세상에 대한 예로서 욥기 1장 1-5절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에 언급된 세상은 경건할 수는 있지만, 자유함과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경직된 세상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와 자유함을 경험한 욥기 42장 13-15절의 세상은 딸들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경직된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의 조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 2) 전통적인 지혜의 가치(접근 가능성)에 대한 도전

잠언의 전통에 따르면 지혜는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지혜에 접근이 가능하다. “여인 지혜”(חכמה/호크마)의 부름에 답 함으로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참조 잠 1-9장). 그러나 욥기에서 지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적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 이러한 지혜의 성격에 대해서 가장 잘 언급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욥기 28장이다. 실제로 욥기 38-4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다.<sup>13)</sup>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욥기 28장을 남성 중심적 사고가 전제되어 있

11) H. D. Preuß, *Einführung in die alttestamentliche Weisheitsliteratur* (Stuttgart: W. Kohlhammer, 1987), 92; Katharine J. Dell, *룻글*, 78-80.

12) J. Ebach, *Streiten mit Gott: Hiob, Teil 1* (Neukirchner-Vluyn: Neukirchner Verlag, 1995), 72; J. Ebach, *Streiten mit Gott: Hiob, Teil 2* (Neukirchner-Vluyn: Neukirchner Verlag, 1996), 168; C.-G. Kang, *Behemot und Leviathan. Studien zur Komposition und Theologie von Hiob 38, 1-42, 6* (WMANT 14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7), 320.

13) 특히 욥기 38장 4절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지혜가 함께 있었음을 이야기 한다. 퀴더거 룩스, *룻글*, 150; E. van Wolde, “Ancient Wisdoms, Present Insights: A Study of Job 28 and Job 38”, *SEA* 71 (2006), 61.

는 곳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의 표현들은 남성들의 능력과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욥기 28장은 오히려 이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지혜에 이를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전통적인 지혜를 대표하는 잠언과 달리 전도서나, 욥기에서의 지혜는 회의적이거나, 숨겨져 있다. 그런데도 전통을 대표하는 많은 지혜자들은 자신들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지혜를 소유한 자신들의 주장은 부정될 수 없음을 확신한다.<sup>14)</sup>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만이 지혜를 독점한 것처럼 주장한다. 반면에 욥기 28장을 통해서 욥은 지혜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sup>15)</sup> 지혜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비록 욥기 28장 28절에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라는 말로 전통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관습적인 신앙으로 회귀하지 않는다.<sup>16)</sup> 오히려 기존의 전통과 멀어진다.<sup>17)</sup> 그러기에 욥기 28장은 지혜에 대한 찬양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지혜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sup>18)</sup> 이러한 틀 속에서 본다면 욥기 28장은 욥기 전체에서 기존의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신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 인격적인 변화를 암시한다.

욥기와 전도서는 행위회복의 관계나 지혜의 가치에서뿐만 아니라 기존의 세상을 바라보는 틀에서도 맥을 같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14) M. Oeming, “Hiob unter den Philosophen. Erwägungen zum “locus intelligentiae” in Hiob 28”, Michael Wladika (ed.), *Gedachter Glaube* (Würzburg: Königshausen & Neumann, 2005), 163.

15) 욥기 28장이 욥의 말이나, 아니면 후대에 첨가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공식적이 입장에서 욥의 말로 전제하고 논지를 전개 시키고자 한다.

16) 안근조, “욥 28장: 지혜찬가”,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욥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260.

17) 안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175. “지금 욥은 지혜 찬양시를 통해 무언가 새로운 지혜를 찾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여호와 경외의 신앙적 지혜와 결별하고 있는 것이다.”

18) M. Oeming, *룻글*, 161-162, 167; Christl Maier/ Silvia Schroer, *룻글*, 201.

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sup>19)</sup>

### 3. 욕기의 여성에 대한 이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욕기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전통과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 중의 하나가 넓게 보자면 ‘인간 중심적인’(anthropocentric) 사고이며, 좁게 보자면 ‘남성 중심적인’(androcentric) 사고일 것이다. 비록 남성들을 직접 비판하고 있진 않지만, 다양한 묘사를 통해서 여성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사고는 욕기의 처음부터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다(참고 욕 1:5).

#### 1) 프롤로그(욕 1-2장)에 언급된 여성에 대한 이해

##### (1) 딸들에 대한 이해

욕기의 산문 부분인 틀 부분에 속하는 프롤로그(욕 1-2장)와 에필로그(욕 3:1-42:6)에 언급된 욕의 아들들과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전의 욕에 대한 묘사와 하나님을 만난 후의 욕에 대한 묘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프롤로그에서는 딸들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1장 2절에서 자녀들의 숫자에 대해서 말할 때 아들 일곱과 함께 딸이 셋이 있다는 정도다. 이어서 1장 4절에서도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연회를 베풀 때 손님으로 잠깐 언급될 뿐이다.

---

19)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서에서 여성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의 대표적인 예로 전도서 7장 26-29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전도서 7장 26절은 전통적인 지혜 사상에서 보는 여인에 대한 이해로서 여인은 부정적인 존재이기에 조심하라는 경고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이 사실인가?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이 진실인지를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사람은 남자들 중에서 천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찾을 수 있었지만 모든 여자들 중에서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28절). 물론 본문에 난해한 부분이 있고,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전통적인 여성 이해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A. Schellenberg, *Kohelet* (ZBA 17: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13), 121.

반면에 욥기 1장 5절에서 언급된 아들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욥의 아들에 대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욥은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풀고, 끝날 때면 언제나 그들을 불러다 성결케 했으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아마도 잔치에 술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아들들이 하나님께 불경한 말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들들이 실제로 불경한 말을 했다가 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으로 보여진다.<sup>20)</sup> 여기에서 고려되는 것은 아들들은 욥에게 있어서 근심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sup>21)</sup> 이것은 동시에 욥이 그만큼 아들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반증일 수 있다.<sup>22)</sup> 반면에 딸들에 대해서는 아들들에 비해 무심한 것처럼 보인다.

## (2) 욥의 아내

욥기의 프롤로그에서는 딸들뿐만 아니라 욥의 아내에게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욥의 아내에 대한 묘사는 부정적이다.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한다. 욥의 아내의 말은 2장 5절의 사탄의 말인 “주를 저주하라”는 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어거스틴은 욥의 아내를 ‘사탄의 조력자’(diaboli adiutrix)라고 비난하기도 했다.<sup>23)</sup> 그러나 실제로 욥기 3장에서 부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지는 않았지만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살기보다는 죽음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욥의 아내는 자

20) J. Ebach, “Hiobs Töchter”, J. Ebach (ed.), *Hiobs Post. Gesammelte Aufsätze zum Hiobbuch zu Themen biblischer Theologie und zur Methodik der Exeges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70.

21) 윗글, 70.

22) Katharine J. Dell, 윗글, 202.

23) V. Maag, *Hiob. Wandlung und Verarbeitung des Problems in Novelle, Dialogdichtung und Spätfassung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82; 칼뱅의 경우도 욥의 아내를 ‘사탄의 도구’로 불렀다. 데이빗 J. A. 클린스, 「욥기 1-20」 (한영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252. 원제는 David J. A. Clines, *Job 1-20* (WBC 17: Dallas: Word Books, 1989).



신의 솔직한 감정을 욱보다 먼저 보인 인물로 볼 수 있다.<sup>24)</sup> 그럼에도 욱의 아내를 마치 잠언에 언급된 어리석은 여인에 비유된다.<sup>25)</sup> 그러나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었을 때 욱의 아내도 욱만큼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욱이 무죄함에도 고난받은 것처럼 욱의 아내 역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자식과 재산을 잃어야 했으며, 고통을 당해야 했다. 그럼에도 욱기에서 욱의 아내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sup>26)</sup>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욱기에서 욱의 아내는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부차적인 존재가 된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이해는 구약 성서에서는 몇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약 성서에서 여자들의 고통이 많이 언급된다(전쟁, 기아, 갈증, 쫓겨남 등). 그럼에도 여자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는다.<sup>27)</sup> 그만큼 여자들의 고통은 구약 성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과 만나기 전의 욱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아쉽게도 욱이 회복된 이후에도 욱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욱이 새롭게 결혼했다는 언급 없이 아들 7과 딸 3을 낳은 것으로 봐서 욱의 아내는 계속해서 욱의 곁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8)</sup> 아마도 욱이 회복된 후에도 욱의 아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욱의

24) 캐롤 A. 뉴섬, 윗글, 355; 데이빗 J. A. 클린스, 「욱기 1-20」(한영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254. 욱의 아내에 대한 여성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F. Rachel Magdalene, "Job's Wife as Hero: A Feminist-forensic Reading of the Book of Job", *Biblical Interpretation* 14 (2006), 209-258.

25) 욱기 2장 10절에서 자신의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간주하고 질책하고 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26) 70인경을 비롯해서 욱의 아내를 변호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존재한다. 데이빗 J. A. 클린스, 윗글, 253-254; V. Maag, 윗글, 81-87; 하경택, 윗글, 69-71; 만프레드 외밍/ 콘라드 스미트, 「욱의 길」(임시영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61-77. 원제는 Oeming, M./ Schmid, K., *Hiobs Weg. Stationen von Menschen im Lei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27) Christl Maier/ Silvia Schroer, 윗글, 198-199.

28) 안근조, "욱의 환난과 경건한 반응",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욱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111. 반면에 G. Fohrer, *Das Buch Hiob* (KAT XVI: Gütersloh: Gerd Mohn, 1963), 544는 욱이 욱기에 언급되지 않은 부인이나, 부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아내를 새롭게 주어질 수 있는 일종의 복으로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욥에게 있어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존재로서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다.

## 2)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에 언급된 여성에 대한 이해 (3-37장)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여성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여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등장하는 언급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들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욥과 욥의 친구들의 여성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전통적인 이해와 다르지 않다.

14:1<sup>29</sup>) (욥)

여인(יְהוָה/잇쇄)에게서 태어난 사람(אָדָם/아담)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15:14 (엘리바스)

사람(אָדָם/에노쉬)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יְהוָה/잇쇄)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25:4 (빌닷)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אָדָם/에노쉬)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יְהוָה/잇쇄)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라

위에 언급된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불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인간

---

29) 본 논문에서 히브리어 번역은 개역개정을 따랐다.

의 한계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다. 그럼에도 여자(ἡψῆς/잇쉬)라는 말의 강조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언급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30)</sup>

욥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욥기 31장 10절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비록 욥이 욥기 24장 1-17절<sup>31)</sup>에서 볼 수 있듯이 점점 더 고통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의 불행한 자들과의 연대의식이 있음에도, 욥기 29-31장 처럼 여전히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욥의 불완전한 인식을 알 수 있다.<sup>32)</sup>

31:9-10 (욥)

9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다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10 내 아내(ἡψῆς/이쉬티)가 타인의 멧들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 부분은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기 31장에 언급된 내용이다.<sup>33)</sup> 욥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했다면,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는 벌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욥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동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성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욥은 자신의 부인을 자식과 마찬가지로 재산목록의 하나로 본 것 같다.<sup>34)</sup> 그러기에 욥의 여성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전환

30) Christl Maier/ Silvia Schroer, 윗글, 197.

31) 이 부분에서 욥은 힘 있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착취당하고, 폭력에 굴복하며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했다. 캐롤 A. 뉴섬, 윗글, 359.

32) 특히 욥기 30장 1-10절에서는 자신을 경멸하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욥의 경멸을 엿볼 수 있다.

33) 욥기 31장에 대해서는 안근조의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안근조, "욥기 31장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윤리" 『구약논단』 36집(2010년 6월), 71-91.

34) 캐롤 A. 뉴섬, 윗글, 361-362.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한 말이지만 가부장제사회의 족장으로서 자신이

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3) 하나님과 욥과의 논쟁(38-42:6)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이해

욥은 친구들과의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더 이상의 대화가 의미 없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나중에는 친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한다.<sup>35)</sup>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욥은 소수자의 위치가 어떤 것임을 절실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후에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논쟁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의견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sup>36)</sup>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관심 가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물론 거기에는 소외되었던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함께 ‘여성’도 포함된다.

이렇게 욥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은 욥과 하나님의 대화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아쉽게도 여기서도 직접 여성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성의 이미지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단서들이 존재한다.

많은 학자들이 욥기의 신현 부분에 언급된 하나님의 모습은 남성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가령 욥기 38-41장에서의 하나님은 동물들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동물들의 주’(Herr der Tiere)나, 베혜못과 리위야단과 싸우시는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성적인 관점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적지 않은 특징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

속한 세계의 도덕적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35) 욥은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고, 헛되이 위로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한다. (욥 16:2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욥 21:34 “그러나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36)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비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될 것이다.

### (1) 모든 피조물들의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세계

시편 104편과 함께 욥기 38-41장은 구약 성서의 창조모델 가운데서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창조모델을 소개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만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거대한 '우주적인 집'으로서 창조하셨고, 그곳에서 사람과 동물,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기에 욥기 38장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상이 인간 중심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은 욥기를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기존의 관점에서 세상은 인간 중심적, 특히 남성 중심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대한 생명의 집은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공간으로 각자가 자신의 공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거기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있고, 있어야 한다.<sup>37)</sup>

### (2) 여성적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자기표현

하나님께서 욥과의 논쟁 속에서 자신을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적인 모습보다는 여성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데에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공격하고, 추적하는 남성적인 이미지로 묘사했다(6:4; 16:7-17; 19:6-12등).<sup>38)</sup>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남성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분이다.<sup>39)</sup>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하나님 이해가 잘못된 것임을 비판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여성적인 섬세함과 관심

37) 강철구, "욥기의 머리말(1-2장)과 맺음말(42:7-17)에 나타난 인간이해", 『구약논단』 65집 (2017년 9월), 24.

38) 강철구, "욥의 하나님 이해: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3집 (2017년 3월), 141-147.

39) Christl Maier/ Silvia Schroer, 윗글, 192.

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창조세계를 돌보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신다.

① 동물의 주/ 여주인(Herr / Herrin der Tiere)

욥기 38장 39절-39장 30절은 생명의 탄생과 양육, 생명력에 대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고<sup>40)</sup>, 동물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한다.<sup>41)</sup> 욥기 연구자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동물의 주/여주인”(Herr / Herrin der Tiere)<sup>42)</sup>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고대 근동에서의 동물의 주/여주인이 동물들을 사냥하고, 억누르고, 제압하는 존재나, 아니면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는 존재나 하는 논쟁이 있다. 그러나 고대의 도상학적 자료에서는 동물의 주나 동물의 여주인의 경우나 동물을 사냥하고, 제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먹을 것을 주고, 양육하는 모습이 함께 나온다.<sup>43)</sup> 그러기에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않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동물의 주’에서는 동물들을 사냥하고, 통제하고, 제압하는 모습이 더 자주 보인다.<sup>44)</sup> 반면에 ‘동물의 여주인’의 경우는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보고, 양육하는 모습에 좀 더 가깝다.

룩스(Rüdiger Lux)는 고대 근동의 ‘동물의 주/여주인’으로서 ‘신’ 혹은 ‘여신’

40) 캐롤 A. 뉴섬, 윗글, 363.

41) 여기에서는 10마리의 동물들, 즉,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등이 언급된다.

42) 동물의 주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U. Neumann-Gorsolke, *Wer ist der "Herr der Tiere"?* Eine hermeneutische Problemzeige (BThSt 8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2); 만프레드 외밍/ 콘라드 스미트, 윗글, 147-182. 추가적으로 구약성서와 관련된 동물들에 관해서는 구자용, “아혜, 동물의 주: 신학적 동물학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56집 (2015년 6월), 205-235.

43) 동물의 여주인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U. Neumann-Gorsolke, 윗글, 195-207; U. Winter, *Frau und Göttin: Exegetische und ikonographische Studien zum weiblichen Gottesbild im Alten Israel und in dessen Umwelt* (OBO 53; Freibur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7).

44) 특히 욥기와 비슷한 시대의 도상학적인 자료에서는 압도적으로 동물의 주는 사냥하고, 제압하는 남성의 특징들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 만프레드 외밍/ 콘라드 스미트, 윗글, 173.

모티브가 욱기에서는 하나님과 동물들의 관계로 설명된 것으로 본다.<sup>45)</sup> 그러나 고대 근동의 도상학적인 자료들과는 달리 욱기에 언급된 하나님은 동물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자상한 아버지(혹은 동물원 원장이나 동물 사육사/보호자)와 같은 분으로 묘사된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욱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도 고대 근동의 ‘동물의 주/여주인’의 특성이 투영된 것으로 본다. 그러기에 욱기의 하나님은 ‘동물의 주’이면서 동시에 동물들을 먹이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동물의 여주인’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욱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으로서 표현되는 구약 성서 곳곳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참고 시 50, 104등). 다만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으로 인해서 이러한 여성적인 특징들이 ‘동물의 주’로서 한분 하나님의 이미지 속으로 흡수되거나 약화된 것으로 본다.<sup>46)</sup>

또한 굳이 하나님을 이러한 고대 근동의 동물의 주 개념으로 보지 않더라도 욱기의 문맥 속에서는 욱의 하나님 이해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동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욱이 탄원했던 폭력적인 남성의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들이 동물들에게도 먹을 것을 제공하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폭력성이 배제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욱기 38장 39절-39장 30절에서 하나님은 동물들의 여주인의 특징과 남성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폭력성이 배제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욱기 저자는 욱에게 하나님을 남성적인 이미지보다는 여성적인 이미지에 더 가깝게 소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5) R. Lux, *Hiob. Im Räderwerk des Bösen* (BG 25;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2), 237.

46) B. Lang, *Jahwe, der biblische Gott: ein Porträt* (München: C.H.Beck, 2002), 107. 랑(Lang)은 우가릿의 자료에서는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동물들의 여신(여주인)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개념을 이스라엘이 따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여성신의 특징들을 모두 지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 ②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38:8-9

8 바다가 그 모태(מַלְאָכָה/메레헵)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9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שִׁבְעָה/레부쇼)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גִּזְרֵי/하틀라토)<sup>47)</sup>를 만들고

바다는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대항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존재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의 존재도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돈의 요소인 바다를 무력으로 제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다루듯이 다루고 있다. 엄청난 혼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바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야기시키는 바다에 대항해서 싸우시는 전사로서가 아니라, 갓난아기와 같은 바다를 돌보시는 어머니로서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다.<sup>48)</sup>

38:29

29 얼음은 누구의 태(יָבֵשׁ/밋베텐)<sup>49)</sup>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יְלָדָה/엘라도)<sup>50)</sup>

47) 히브리어로 갓난아이들을 위한 '기저귀'를 의미한다. W.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H. Donner (ed.) (Heidelberg/Dordrecht/London/New York: Springer, 182013), 411; L. Koehler/W. Baumgartner,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Leiden/Boston: Brill, 2004), 350.

48) G. Fuchs, *Mythos und Hiobdichtung. Aufnahme und Umdeutung altorientalischer Vorstellungen* (Stuttgart, Berlin & Köln: Kohlhammer, 1993), 197; P. Ritter-Müller, *Kennst du die Welt?-Gottes Antwort an Ijob. Eine sprachwissenschaftliche und exegetische Studie zur ersten Gottesrede Ijob 38 und 39* (Münster: Lit, 2000), 164-167; C.-G. Kang, *헛글*, 75.

49) יָבֵשׁ(베텐)은 보통 배나 하체를 가리키며 여성과 관계될 때는 여성의 몸, 모태, 자궁 등을 의미한다. W. Gesenius, *헛글*, 139.

50) "누가 낳았느냐"(יְלָדָה יְלָדָה) 미 엘라도라는 표현은 대부분 어머니와 연결된 것으로 본다. 데이빗 J. A. 클린스, 「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늘의 기후 현상의 출처와 이것을 통제하고, 조정하시는 분이 자신임을 말씀하신다.<sup>51)</sup> 28절의 비와 이슬방울과 같이 고체 상태의 얼음이나 서리도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출산하셨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성의 모습(어머니)로서 드러내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③ 가정주부로서의 하나님

38:12-13

12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13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서 묘사되는 장면은 아침에 가정주부가 이불을 들고나와서 먼지를 털어내는 장면과 유사하다.<sup>52)</sup>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상을 열어가는 분이다.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창조를 행하심으로 이 땅이 혼돈의 세력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유지 시키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여기서도 어둠과 싸우는 ‘전사’(남성)로서의 이미지보다는 부지런한 ‘주부’(여성)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불을 털고, 정리하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했다. 그러기에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려내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남성적인 모

---

기 38-42, 74.

51) G. Fuchs, 윗글, 209.

52) 윗글, 202.

습이 강하게 투영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욥이 묘사했던,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시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피조 세계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여성적인 모습으로 드러내신다. 이것은 욥과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도전이며, 이들이 아직까지 지니고 있었던 사고의 틀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묘사를 통해서 욥이 저자는 욥이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긍정적인 여성관을 가지게 해서, 결국 자신의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욥 42:13-15).

#### 4) 에필로그(욥 42:6-17)에 언급된 딸들(여성)에 대한 이해

욥기 1장 5절에 언급된 욥의 아들들은 욥에게 있어서 근심의 대상이었다면, 욥기 42장 13-15절에 언급된 딸들에 대한 묘사는 매우 긍정적이다. 친구들과의 긴 논쟁과 이어서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욥은 이제 더 이상 욥기 1-2장에 언급된 욥이 아니다. 욥은 기존의 재산이 두 배로 회복된 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sup>53)</sup> 그리고 이러한 욥의 깨달음은 딸들(여성)에 대한 관심에서 절정에 이른다.

##### (1) 딸들에 대한 관심

욥기 1장 4-5절에서 언급된 아들들에 대한 묘사는 42장 13-15절의 욥의 딸들에 대한 묘사와 상반된다. 에필로그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1장에서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sup>54)</sup> 딸들은 욥의 가정에서 높은 존중을 받는다.<sup>55)</sup> 1장에선 언급되지 않았던 딸들의

53) J. Ebach, 윗글, 168.

54) 윗글, 167. 클라인의 경우는 욥이 그의 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그녀들의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데이빗 J. A. 클린스, 「욥기 38-42」(한영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14), 373. 원제는 David J. A. Clines, *Job 38-42* (WBC 18B; Dallas: Word Books, 2011).

55) V. Maag, 윗글, 85.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첫째 딸은 “여미마”로 멧비둘기를, 둘째 딸은 “굿시야”로 계피나무 꽃을, 그리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으로 화장용도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sup>56)</sup> 이들의 이름은 아름다움이나, 화장도구와 관계된 이름으로 보인다. 욥기 저자는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욥기의 독자들이 세상을 더 이상 힘을 앞세운 남성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여성적인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보도록 인도한다.

동시에 딸들이 각각 자신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막(V. Maag)에 따르면 인격(Personlichkeiten)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sup>57)</sup> 남성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성과 인격을 상실한 채 살아갈 것을 강요당하는 욥의 딸들은 더 이상 움추릴 필요가 없다.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기에 세상은 동물들을 포함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공간이며, 공간이어야 한다.

## (2) 딸들에게 유산을 배분함(여성의 지위와 경제적인 독립성)

욥기 1장 2-3절에 욥의 재산에 대해서 말할 때 욥의 자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욥의 자녀가 재산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욥기의 배경이 되는 고대 사회를 상정할 때 넓은 의미에서 욥의 자녀들은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며, 가장 가치 있는 소유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이 부분과 대응되는 욥기 42장 12-14절에 언급된 재산목록에서는 욥의 자녀들이 가장 나중에 언급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도 욥의 자녀들이 재산목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욥의 회복에 있어서 재산의 회복은 고난 당하기 이전보다 2배로 회복되었는데, 욥의 자녀

56) R. Lux, 윗글, 278.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연구」(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6), 282은 여미마-잉꼬비둘기, 굿시야-육계화, 게렌합북-작은 화장품 상자로 번역한다.

57) V. Maag, 윗글, 87.

들은 그대로 아들 7과 딸 3으로 이전과 같다는 것은 욱의 자녀들과 재산의 의도적으로 분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8)</sup>

또한 욱기 42장 15절에 아버지인 욱이 세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유산을 나누어 준다. 이로써 딸들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욱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된다.<sup>59)</sup> 사실 이러한 장면은 욱의 재산의 많음을 말하려 하기 보다는 욱의 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욱은 더 이상 아들과 딸,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통적인 가치관속에서 주장하는 남성 이해를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욱의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남성(남편)들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아가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세 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세상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것이다.<sup>60)</sup> 욱기 1장에서는 주로 아들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에필로그에서 욱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욱의 딸들은 고대 사회에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욱기에서의 여성에 대한 묘사는 욱의 딸들을 통해서 정점에 도달할 수 있었고, 참된 지혜가 어떤 것임을 알게 해준다.

#### 4. 나오며

욱기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성경이다. 그러기에 욱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체계와 논쟁을 한

---

58) 강철구, "욱기의 머리말(1-2장)과 맺음말(42:7-17)에 나타난 인간이해", 『구약논단』 65집 (2017년 9월), 12-37.

59) J. Ebach, "Hiobs Töchter", 68. 욱의 딸들의 지위와 관련해서 V. Maag, 윗글, 86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욱이 딸들은 아들들과 비슷함을 강조한다.

60) J. Ebach, "Hiobs Töchter", 72.

다. 그중의 하나가 여성에 대한 주제일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욱기는 족장 시대의 배경으로 인해서 남성 중심적인 성경으로 오해할 수 있다. 또한 프롤로그에 언급된 욱의 아내로 인해서 욱기 전체에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욱기가 후반부를 향해서 나아갈수록 다양한 암시나 표현들을 통해서 실제로 여성에 대한 이해가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욱기의 여성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전과 이후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관찰해야 한다. 욱기의 저자는 욱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전의 욱의 전통적 사고가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대화와 대화 이후에 그러지는 욱기에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과 여성을 바라보고 있다. 즉, 욱기는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이해를 비판하고, 하나님과 만난 이후의 새로운 관점으로 여성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종속되거나, 부속물처럼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욱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세계와 격리되어서 살고 있는 부정한 야생 동물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거할 처소와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과 척도를 넘어서서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생명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권리를 주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되어온 여인들에게도 해당 되어야 한다. 여인들도 자신의 권리와 그들 자신만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욱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를 비판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스라엘의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새로운 관점에서 여성을 표현한다. 그러기에 욱기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을 수정함으로 여성의 자리를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위치시켜 놓은 책으로 볼 수 있다.

## 5. 참고문헌

- 강철구, “욥의 하나님 이해: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3집 (2017년 3월), 139-164.
- \_\_\_\_\_, “욥기의 머리말(1-2장)과 맺음말(42:7-17)에 나타난 인간이해”, 「구약논단」 65집 (2017년 9월), 12-37.
- 구자용, “야훼, 동물의 주: 신학적 동물학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56집 (2015년 6월), 205-235.
- 안근조, “욥의 환난과 경건한 반응”,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욥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103-114.
- \_\_\_\_\_, “욥기 31장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윤리” 「구약논단」 36집 (2010년 6월), 71-91.
- 오민수, “지혜전통의 계승과 혁신: 전도서에 사용된 이른바 ‘서술형 사고 패턴’의 유래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54집 (2014년 12월), 281-310.
-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서울: 한국성서연구소, 2006).
- 데이빗 J. A. 클린스, 「욥기 1-20」 (한영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원제 Clines, David J. A., *Job 1-20* (WBC 17; Dallas: Word Books, 1989).
- \_\_\_\_\_, 「욥기 38-42」 (한영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14). 원제 Clines, David J. A., *Job 38-42* (WBC 18B; Dallas: Word Books, 2011).
- 뤼디거 룩스, 「이스라엘의 지혜」 (구자용 옮김),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12). 원제 Lux, R., *Die Weisen Israel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gesellschaft, 1992).
- 만프레드 외밍/ 콘라드 스미트, 「욥의 길」 (임시영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원제 Oeming, M./ Schmid, K., *Hiobs Weg. Stationen von Menschen im Lei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 에리히 쉐어, 「구약 성서개론」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2), 680-682. 원제 E. Zeng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4).

캐롤 A. 뉴섬, “욥기”, 캐롤 A. 뉴섬/ 샤론 H. 린지(엮음), 「구약편.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349-365. 원제 Newsom, Carol A. / Ringe, Sharon H.,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Dell, Katharine J., *The Book of Job as Sceptical Literature* (BZAW 197;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1).

Lang, B., *Jahwe, der biblische Gott: ein Porträt* (München: C.H. Beck, 2002).

Ebach, J., " Hiobs Töchter ", J. Ebach, *Hiobs Post: Gesammelte Aufsätze zum Hiobbuch, zu Themen biblischer Theologie und zur Methodik der Exegese* (Neukirchen-Vluyn: Neukircher Verlage, 1995).

\_\_\_\_\_, *Streiten mit Gott: Hiob, Teil 1* (Neukirch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_\_\_\_\_, *Streiten mit Gott: Hiob, Teil 2* (Neukirch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96).

Fohrer, G., *Das Buch Hiob* (KAT XVI) (Gütersloh: Gerd Mohn, 1963).

Fuchs, G., *Mythos und Hiobdichtung. Aufnahme und Umdeutung altorientalischer Vorstellungen* (Stuttgart, Berlin & Köln: Kohlhammer, 1993).

Gesenius,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H. Donner(ed.) (Heidelberg/Dordrecht/London/New York: Springer, 2013).

Kang, C.-G., *Behemot und Leviathan. Studien zur Komposition und Theologie von Hiob 38,1-42,6* (WMANT 14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7).

Koehler, L./ Baumgartner,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Leiden/Boston: Brill, 2004).

www.kci.go.kr

- Lux, R., *Hiob. Im Räderwerk des Bösen* (BG 25;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2).
- Maag, V., *Hiob. Wandlung und Verarbeitung des Problems in Novelle, Dialogdichtung und Spätfassung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 Magdalene, F. R., "Job's Wife as Hero: A Feminist-forensic Reading of the Book of Job", *Biblical Interpretation* 14 (2006), 209-258.
- Maier, Ch./ Schroer, S., "Das Buch Ijob. Anfrage an das Buch vom leidenden Gerechten", L. Schottroff / M. Th. Wacker (ed.), *Kompendium. Feministische Bibelauslegung* (Güter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99), 192-207.
- Neumann-Gorsolke, U., *Wer ist der "Herr der Tiere"? Eine hermeneutische Problemanzeige*, (BThSt 8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2).
- Oeming, M., "Hiob unter den Philosophen. Erwägungen zum "locus intelligentiae" in Hiob 28", Michael Wladika (ed.), *Gedachter Glaube* (Würzburg: Königshausen & Neumann, 2005).
- Preuß, H. D., *Einführung in die alttestamentliche Weisheitsliteratur* (Stuttgart: W. Kohlhammer, 1987).
- Ritter-Müller, P., *Kennst du die Welt?-Gottes Antwort an Ijob. Eine sprachwissenschaftliche und exegetische Studie zur ersten Gottesrede Ijob 38 und 39* (Münster: Lit, 2000)
- Schellenberg, A., *Kohélet* (ZBA 17;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13).
- Van Wolde, E., "Ancient Wisdoms, Present Insights: A Study of Job 28 and Job 38", *SEÅ* 71 (2006), 55-74.
- Winter, U., *Frau und Göttin: Exegetische und ikonographische Studien zum weiblichen Gottesbild im Alten Israel und in dessen Umwelt* (OBO 53;



Freibur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7).

[www.kci.go.kr](http://www.kci.go.kr)

검색어

여성적 관점

욥의 아내

욥의 딸들

지혜

동물의 주

## A Feminist Reading of the Book of Job

Chol-Gu Kang, Dr. theol.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ere are not many books in the Old Testament that reveal a feminine perspective. Therefore, it is very valuable to study the book of Job. However, the book of Job which reflects the patriarchal era, has been misunderstood as a book against women. Unfortunately, because of this misunderstanding there has not been many attempts to find the dignity and rights of women in the book of Job. In this paper, I did a research on how the book of Job understands women.

For this purpos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Job or the historical-critical method, I sought to find the meaning of women in the masoretic text (MT) of Job. At the same time, I used the feminist hermeneutics. First of all, women in the prologue or in the conversations of Job with his friends are negatively presented or ignored. Even Job's wife, whose voice was the only female voice in the book of Job, is negatively depicted because of her words (2:9, "Are you still holding on to your integrity?

www.kci.go.kr

Curse God and die!”). But the voices of women in the conversation of God with Job and in the epilogue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In particular, through the description of Job’s daughters at the end of the book of Job, women have finally been acknowledged as human beings of the same dignity as men, having the image of God.

In this paper, I could meet the author of the book of Job, who through his critical view broke the traditional female image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presented a new female image that is equivalent to the male image. I hope that the former misunderstanding of women in the book of Job will be corrected, and that, at the same time, th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us to understand men and women as equal beings.

Keywords

a feminist perspective

Job's wife

Job's daughters

wisdom

Lord of animals

- 투고일: 2018년 10월 15일
- 심사일: 2018년 10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11월 10일